

경로당 기능활성화 방안 모색

-고성군을 중심으로-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2
II. 이론적 배경	3
1. 경로당의 기능	3
2. 경로당의 정책 동향	4
III 고성군 경로당의 현황 및 문제점	5
1. 고성군 경로당 현황 및 이용실태	5
2. 고성군 경로당 활용의 문제점	10
IV. 타 지자체 사례 분석	12
1. 거점경로당 지정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거점 역할	12
2. 일자리와 연계해 경로당 역할 다양화	16
3. 지역사회 자원봉사 문화 확산	18
V. 개선방안 및 정책제안	19
1. 고성군 경로당 기능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9
2. 결론 및 정책제안	22
〈참고문헌〉	24

표 목 차

〈표 1〉 고성군 인구 현황	5
〈표 2〉 고성군 연도별 인구변화	6
〈표 3〉 고성군 연도별 고령인구 변화	6
〈표 4〉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7
〈표 5〉 경로당 운영비 지원현황	7
〈표 6〉 경로당 프로그램 이용현황	8
〈표 7〉 경로당 프로그램 이용횟수	8

그 림 목 차

〈그림 1〉 경로당 이용유무 및 횟수	9
〈그림 2〉 경로당 미이용 주된 이유	9
〈그림 3〉 경로당 이용중 불편했던 점	10

I 서론

1) 연구목적

2019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25년에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하게 되며, 2051년에는 전체인구의 40%가 노인인구로 채워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핵가족화, 산업화, 도시화 및 노인부양의식의 약화로 인하여 노인들은 점차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와 역할을 상실해가고 있다. 여기에 현대사회의 노인은 경제문제, 건강문제, 심리문제, 여가선용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평균수명의 연장과 독거노인의 증가로 인해 노년기의 사회적 삶은 고독감과 소외감으로 채워지고 있다. 노인의 고독감과 소외감은 사회적 단절을 최소화하고 주변의 사회적 관계망의 상실을 복원해야만 극복될 수 있다. 이런 점에게 지역주민간의 연대와 관계의 장으로서 경로당은 노인의 고독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마을의 중요한 복지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로당은 마을의 곳곳에 까지 설치되어 있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주거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적인 복지기관으로서 장점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로당은 설치된 시설의 규모만큼 충분한 재정적,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용이한 접근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여가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상호간의 도움을 통해 고

독감과 소외감을 해소하는 중추적인 복지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순한 사랑방 수준에 머물러온 경로당의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복지인프라가 충분지 않은 농촌지역에서만은 경로당은 마을 노인의 공동체적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복지자원임에는 틀림없다.

경로당이 복지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복지수요를 보완해주는 대체재로서 그 기능을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시설로서만 그 기능이 제한적으로 정의되고 있고, 실제 운영도 이 같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일부 농촌지역이 복합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의 욕구에 대응하여 경로당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자원에 주목하고, 마을의 중요한 복지공간으로 경로당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경로당의 새로운 운영모형에 대한 타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고 고성군 경로당의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이런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성군 경로당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한 다음 타시군의 우수사례를 검토한 후 고성군의 실정에 맞는 경로당활성화사업 방안을 정책 제언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경로당 기능

노인복지법에서는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 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노인복지법상 경로당의 개념은 여가시설로만 특정되어 있지만 현재의 경로당은 다양한 운영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동안 경로당은 주요한 기능을 사랑방을 생각했지만 고독감, 소외감, 박탈감, 역할상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친목도모, 여가활동, 건강증진, 휴식, 상담, 교육, 레크레이션 등을 통하여 사회적 연대감을 갖고 건전하고 보람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경로당은 노인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위치하고 있으면서, 노인들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 및 지역사회노인 단체로서의 명시적, 미명시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또한 친목도모와 여가보내기, 휴식 기능 등을 수행하는 노인들을 위한 거의 유일한 지역사회 서비스 체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경로당은 역할 모호성 그리고 운영체계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체계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친목의 공간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로당을 지역의 중요한 복지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경로당의 운영은 지역의 중요한 복지자원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경로당은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에 건립되어 지역 노인들이 쉽게 모일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

로당 시설의 협조, 설비의 부족, 운영지원(인적, 물적)자원의 부족, 정부 재정 지원의 빈약, 지역자원 연계 방법 미숙, 경로당임원진 역할 수행 부족, 사회적 인식 부족, 여가활동 프로그램 전달과정 미흡 등의 문제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경로당은 마을의 중요한 복지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역할은 단순한 친목도모를 위한 사랑방수준으로만 기능해 왔다.

2) 경로당 정책동향

최근 보건복지부와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로당을 마을의 중요한 복지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실험이 추진되고 있다. 가령, 김제시의 경우 2007년부터 경로당을 단순한 여가복지시설이 아닌 독거노인의 공동주거시설로 탈바꿈하여 경로당을 독거노인의 주거복지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로당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여 아동과 노인이 함께 이용하는 세대 통합 복지시설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 같은 새로운 변환에 주목하여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도 경로당을 새로운 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2013년 경로당 운영혁신사업을 통해 경로당을 지역의 노인복지와 정보센터로 기능을 혁신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즉, 경로당을 1. 노인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하고, 2. 프로그램 조정. 지원을 담당하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기능의 전문화하며, 3.독거노인 생활교육 실시장소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독거노인 보호기능 수행시설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앙정부의 시범사업의 모태가 된 김제시의 공동거주시설 경로당은 독거노인이 많은 농촌특성을 반영하여 시정 주도하에 2007년부터 추진되었다. 김제시의 공동거주시설 경로당은 2006년에 2개소를 시작으로 2012년 128개소로 확대 운영 중에 있고, 이곳을 이용 중인 노인만 2012년 말 기준으로 1,366명에 이른다.

경로당 정책의 이 같은 변화는 경로당이 여가시설로서만이 아닌 공동주거시설로서도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었다는 점에서 경로당 기능개선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경로당 기능의 다양화를 고성군에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Ⅲ. 고성군 경로당의 현황 및 문제점

1) 고성군 경로당 및 이용 현황

□ 인구현황

고성군은 2020년 7월 기준 총 세대수 26,123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남자 25,971명, 여자 25,766명으로 전체 51,737명이며 전체인구중 고령인구(65세 이상)는 15,944명(30.82%)으로 고령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나타내어 초고령화사회로 나타났다

<표 1> 고성군 인구현황

(기준 : 2020. 7., 단위 : 가구, 명, %)

계	세대수		남		여	
			인원	비율	인원	비율
51,737	26,123		25,971	50.2	25,766	49.8
	유소년인구(0~14세)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령인구(65세 이상)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4,612	8.9	31,181	60.3	15,944	30.8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5년부터 5년간 고성군의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 5년 전 대비 3,008명 가량 감소하고 있어 경남 평균 인구 감소율보다 월등히 높다

<표 2> 고성군 연도별 인구변화

(단위 : 명, %)

구분	인구			인구증가율 (고성)	인구증가율 (경남)
	계	남	여		
2015년	55,284	27,715	27,569	△1.1	0.4
2016년	54,703	27,452	27,251	△1.1	0.3
2017년	54,060	27,064	26,996	△1.2	0.2
2018년	53,243	26,675	26,568	△1.5	△0.2
2019년	52,276	26,208	26,068	△1.8	△0.3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반면 만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전체 고성인구의 25.7%에서 2019년 29.8%, 현재는 30%를 넘어서고 있으며, 고령인구 증가율은 2015년 0.9%에서 2019년 2.8%로, 고령화 속도 역시 점차 빨라지고 있다.

<표 3> 고성군 연도별 고령인구변화

(단위: 명, %)

구분	고령인구	인구비율	증가율
2015	14,222	25.7	0.9
2016	14,462	26.4	1.7
2017	14,842	27.5	2.6
2018	15,158	28.5	2.1
2019	15,577	29.8	2.8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노인이용시설 현황

2020년 6월 30일 기준 고성군의 노인여가시설은 326개소(경로당 323개소, 노인교실 3개소)가 있으며, 노인복지관이 없으며 노인교실이 3개소 있으나 이중 2개소는 고성읍에 위치하고 있다.

<표 4>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기준: 2020.06.30., 단위: 명)

구분	시설명		주소지	법인(단체)명	비고
노 인 여 가	경로당		고성읍 남산경로당 외 322개소	마을운영	
	노인 교실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부설 노인대학	고성읍 남포로 79번길 133	대한노인회	
		고성 장수대학	고성읍 중앙로 25번길 12	고성교회	
		회화 노인대학	회화면 관인로 30-10	회화노인대학	

*출처: 고성군 주요업무계획

□ 고성군 경로당 운영비 지원현황

경로당 운영비는 냉난방비를 포함하여 개소당 평균 3,531천원 지원되고 있으며, 건강보조기구는 전체 경로당중 15개소 지원된다

<표 5> 경로당 운영비 지원현황

(기준: 2021.06.30.,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개소)	사업비	개소당 평균
총계			3,531
경로당 운영비	323	470,000	1,455
냉 · 난 방 비 지 원	323	541,000	1,674
양 곡 지 원 사 업	323	130,000	402
건 강 보 조 기 구 지 원	15	30,000	2,000

*출처: 고성군 주요업무계획

□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현황

2021년 6월 기준 고성군 경로당 322개소 중 중복지원 4개소를 포함하여 총 166개소에서 여가활동 프로그램 이용중이다

<표 6> 경로당 프로그램 이용현황

(기준: 2021.06.30.,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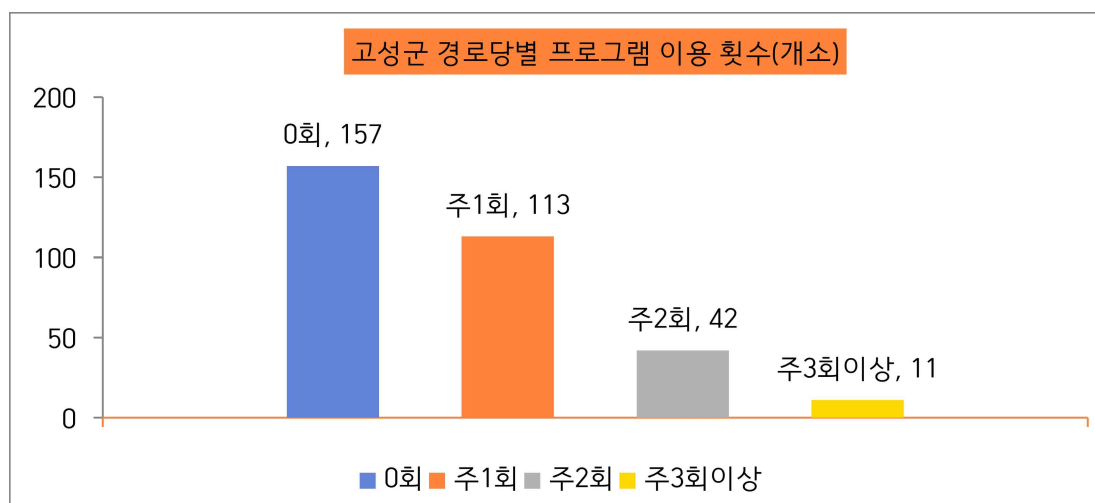
프로그램	내용	운영부서	운영개소	2개이상 중복
고성학당	성인 문해 교육	복지지원과	28개소	
실버놀이교실	손 체 조 등의 신체 활동	복지지원과	58개소	
어르신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생활체육프로그램 진행	체육진흥과	16개소	3개소
경로당프로그램지원	경로당별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지원	대한노인회	64개소	1개소

*출처: 고성군 주요업무계획

□ 경로당별 프로그램 이용 횟수(주간)

고성군 경로당은 전체 34%(113개소)가 주1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13%(42개소)가 주2회, 3.4%(11개소)가 주3회이상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48.6%(157개소)가 프로그램 이용을 하지 않고 있음

<표 7> 경로당 프로그램 이용횟수



□ 고성군 경로당 이용현황

2018년 1년간 경로당을 1회 이상 이용해본 노인은 61.4%이며, 49.4%는 거의 매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47.9%)에 비해 여성(70.5%)의 경로당 이용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1〉 경로당 이용 유무 및 횟수



*출처: 통계청, 2019 고성군노인실태조사결과

□ 경로당 미 이용 주된 이유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아직 젊다고 생각해서(26.0%)」, 「건강이 좋지 않아서(19.4%)」, 「놀이문화가 맞지 않아서(19.1%)」, 「시간이 없어서(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경로당 미 이용 주된 이유



*출처: 통계청, 2019 고성군노인실태조사결과

□ 경로당 이용중 불편했던 점

경로당 이용 노인 61.6%는 이용 시「불편한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였으나 불편한 부분은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14.9%)」, 「운영비 및 인력의 부족(11.7)」, 「먼 거리(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3> 경로당 이용중 불편했던 점



*출처: 통계청, 2019 고성군노인실태조사결과

2) 고성군 경로당 활용의 문제점

□ 경로당 시설의 노후화 및 협소

- 고성군 경로당 시설을 건축연도별로 보면 10~15년 된 경로당이 20%, 15~20년 된 경로당이 50%, 20년 이상된 경로당 또한 30%로 전체 경로당의 80%이상이 신축된 지 1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경로당의 규모는 30평 미만이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협소하여 경로당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기에는 규모가 작다

□ 경로당 운영방식의 문제

- 고성군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2021년 현재 총 1,141천원으로, 이는 각 경로당 1개소 당 약350만원 가량 지원하고 있으나 이중 난방비가 47%(541,000천원)를 차지하고 있어 운영비의 대부분이 난방비에 집중되어 있음. 현재 경로당 운영체계에서 경로당별 운영비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단순한 사랑방 역할의 경로당 운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우선 담당 공무원과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323개의 경로당을 동시에 관리하기 때문에 경로당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프로그램 운영주체가 민·관·군 및 각종 사회단체·민간단체·자생단체 등으로 복잡하게 제공되고 있고 이들을 통합적으로 관장할수 있는 컨트롤타워 부재함

-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대한노인회소속으로 대한노인회 업무를 보조함으로써 업무분장의 모호함으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효율적이다.

- 경로당을 운영하는 운영책임자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운영책임자 또한 연로한 경우가 많아서 교육의 필요성 절실하다.

□ 경로당 프로그램 제공의 문제

- 경로당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경로당이 전체 약48.6%(157개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수 있음. 이와 더불어 경로당 프로그램 또한 노인들의 건강, 사랑방 기능과 같은 단기성.일회성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추어져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의 다양성 약화되어 있다.

- 또한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보

가 축적되지 않고, 지역사회단체가 프로그램 제공시 공무원이 미인지 상태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프로그램의 중복등의 문제 발생한다.

□ 경로당 이용자의 특성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의 연령은 75세 이상의 노인들 49.7%를 차지하고 있어 경로당 이용 노인의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다양성 약화로 신 노년세대라 불리는 65~ 75세 노인들의 여가욕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해 이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 노인복지관 부재에 따른 노인여가시설 환경 열악

- 고성군은 다양한 계층의 노인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노인복지관이 부재하여 70대 초반까지의 노인들의 이용할 여가복지가 전무하다.

- 고성군의 여가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3개소의 노인교실중 2개소가 고성읍에 위치하고 있어 면지역의 노인들은 교통수단의 불편함으로 사실상 이용 불가하다.

- 따라서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할수 있는 광역단위의 거점경로당 필요하며, 신(新)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 반영한 노인복지관수준의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 대두되고 있다.

IV. 타 지자체 성공사례 분석

1) 거점경로당 지정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거점 역할

□ 경기도 양주시 너나들이 경로당 사업

- 노인인구 전체 12% 차지함에도 노인복지관 부재로 양질의 노인

여가복지 프로그램 진행 어려움 인식하고 큰 규모의 경로당을 거점 경로당으로 지정 후 인근의 다수 경로당 회원 공동이용 유도 및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동작업장, 농산물 직거래 등 다양한 부대시설 운영.

- 2015년 남면분회 신산리 경로당 신규 지정후 2016년 3개소 추가 지정, 2018년부터 읍면동별 1개소 지정 운영중이며, 거점경로당 선정 시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리모델링비 지원, 회장 및 총무를 실버코디네이터로 임명후, 노인일리사업(시장형)과 연계해 활동비 보조

- 단순 사랑방 구실만 하던 경로당을 공동작업장 등으로 전환시켜 노인일자리 창출유도하고, 복합기능 갖춘 여가문화 배움터 조성: 선호도 조사결과 반영하여 노래교실, 스마트폰교실, 컴퓨터교실, 행복체조 등 프로그램 종류와 운영 횟수도 확대시도(주1회→주2회)

- 민관협력 프로그램 주1회 지원: 거점경로당별로 보건소, 건강보험관리공단, 교육진흥원, 양주실버인력뱅크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보건상담, 경로당 주치의제, 실버체조, 컴퓨터 교육강사 파견, 문화순회공연, 찾아가는 어르신 일자리설명회, 공동작업형 일자리 제공업체와 연계한 일거리 프로그램도 지원

- 한식당 운영: 프로그램 참여 회원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의 식사 판매하면서 일자리 창출 기여

- 평가: 인근 경로당 회원들이 많은 프로그램 참여함으로써 건강관리 및 여가 선용에 기여, 경로당의 본기능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활기찬 노후에 도움

- 경기도 양주시 너나들이 경로당 운영 사례

웃음치료 활동



한식당 운영



□ 경기도 부천시 거점경로당 사업

- 경로당의 공간협소 및 시설노후화, 신규 노인 진입에 따른 세대 간 다양한 욕구 대응 어려움 발생, 경로당 회원간 교류부재, 노인복지회관의 수용력, 접근성의 문제점 인식후 대안 마련

⇒ 5개소 이상의 경로당 통폐합후 거점경로당 지정

- 프로그램 교실위주의 거점 경로당 운영 ⇒ 주5일(1일2회) 운영으로 프로그램 운영 강화, 공간 확보를 통해 별도의 프로그램실 운영

- 경로당 자체 운영하는 타 시군과 달리 대한노인회지회 직영운영으로 별도의 노인회 구성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여 이용자의 심리적 접근성 강화

- 별도의 시설 확보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및 거점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정, 필요시 노인일자리 인력 활용

- 우수 선호 프로그램 주5일 배치 및 신규프로그램 적극 발굴후 반영



2) 일자리와 연계해 경로당 역할 다양화

□ 공방운영으로 노인들에게 일에 대한 보람 함양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마을경로당은 2008년부터 공방운영하여 경로당 회원들이 직접 제작한 공예품들로 실생활에 유용한 구둣주걱, 지팡이, 안마기 등 다양한 작품 제작

- 약 1년간 기술 교육 전수후 작품 만들어내고, 주문을 받아 인사동에 판매할 수준에 도달

- 공예품 가격은 1~2만원 수준으로 개인당 한달 수입이 평균 10~20만원 정도로 일속에서의 재미와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도움 병행



□ 곡성군 공동작업장 각광

- 곡성군은 2017년부터 경로당 공동작업장 사업을 추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층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제공

- 공동작업장 사업에 참여하는 경로당은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재료비, 운영비를 지원받음. 죽곡면과 고달면은 지역특산물인 토란을, 입면 공동작업장에서는 비트를 재배 및 손질. 특히 파종부터 수확까지 고령의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경작하면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도 도움

- 공동작업장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은 참여 주민들의 인건비와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쓰여짐.

-경로당 공동작업장 사업이 노인층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건강증진에 기여



3) 지역사회 자원봉사 문화 확산

□ 지역사회 책임지는 노인상 구현하는 부산 삼익비치 경로당

- 부산 수영구 삼익비치경로당은 회원들이 광안리 지킴이, 9988자원봉사클럽, 행복도우미, 관광도우미 등으로 활동
- ‘광안리지킴이’는 경로당 앞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 쓰레기 및 오물제거 봉사활동 전개
- ‘9988자원봉사클럽’은 민원발생지 찾아가 방문, 창틀, 방충망, 쉼크대, 선풍기 등 수리하며, 폐품수거 및 처리등을 책임지고 있음.
- ‘행복도우미’는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께 식사대접활동하고 있음.
- 노인들의 단합된 모습으로 젊은 세대에게 ‘사회를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중임



V. 개선방안 및 정책 제언

1) 고성군 경로당 기능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 경로당 운영제도 및 조직 개선

현재 경로당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인력을 충원하여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향상과 경로당 운영의 충실한 협력자로서의 역할 증진 필요하다.

또한 순회프로그램관리자가 대한노인회의 업무를 보조함으로써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업무와 역할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신속한 업무 분장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 맞춤형 경로당 기능과 프로그램 제공

- 인구특성별 경로당 프로그램 제공

현재 고성군은 지역 노인들의 인구특성별 선호를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용노인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경로당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노인들의 선호변화에 대한 관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전통적 사랑방 기능의 유지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노인들의 욕구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로당은 노인들의 단순한 쉼터, 사랑방 형태의 여가시설로서의 역할 강조된다.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활발한 여가시설로서의 경로당도 중요하지만 전통적 사랑방 기능과 병행하여 활성화된 경로당의 발전 필요성 있다.

- 새로운 프로그램의 제공과 흥미유발

경로당의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기존 프로그램이 단순하고 흥미롭지 않기 때문임. 뿐만 아니라 향후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기존의 선호 프로그램과 차이가 없는 것은 노인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에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흥미를 유도해 내야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 경로당 기능의 통합과 분리(거점경로당 설치 운영)

- 거점경로당 설치 필요

고성군의 경로당은 모두 유사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 경로당 운영의 비효율성 내재되어 있다.

경로당의 규모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하기에는 협소한 곳이 많아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에 장애가 된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의 부재로 인해 신(新)노인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노인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가활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심리적 배타성 등의 문제를 선결한다는 전제하에 거점 경로당 활용할 필요성 있다..

일정 권역별로 거점 경로당을 지정하고 거점 경로당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경로당은 전통적 사랑방 기능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경로당의 기능을 통합·분리 운영 해야 한다.

- 거점경로당 유형

거점경로당의 유형은 시설의 기능 개선과 시설 복합화, 시설통합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기능 개선은 경로당의 기능인 노인여가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유형이며, ②시설 복합화는 기존 노인여가 외의 영역인 돌봄, 공동생활과 같은 재가복지 등의 서비스를 일부 추가하여 기능을 다양화하는 유형이다. ③시설통합은 기존 경로당 중 노후화되었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협소한 공간을 가진 시설을 선별하여 통폐합 후 다양한 기능 및 지역사회와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노인 중심의 마을복지센터로 만드는 유형이다.

- 시설 통합형 거점경로당 설치

시설 통합 유형은 경로당의 노후화된 시설과 협소한 공간에 따른 운영프로그램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경로당의 재활용이 아닌 새로운 시설의 건립에서 그 해결 방안을 찾는 유형이다.

고성군 경로당의 대부분은 100㎡이하의 규모로 수용할 수 있는 이용 인원의 규모는 18~30명 정도이다. 거점경로당이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대체하고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중간 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 이용인원은 약 40명 정도가 될 것이다.

이는 기존 경로당의 대부분이 거점경로당으로 재활용되기에는 협소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시설 통합 유형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경로당 중에서 시설 환경이 나쁜 시설을 선별하여 통폐합하고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새로 건립된 시설은 통폐합된 경로당의 영역을 포함하여 주변 복지시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거점경로당으로 만들어 진다. 이 유형은 기존 시설의 재활용보다는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전제하에, 쾌적한 환경의 제공과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치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지역적 특색을 찾아 시설 내에 반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복지로 협력네트워크를 만들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수 있다. 나아가 복지 행정서비스에만 의존했던 기존 방식을 탈피하고 주이용 대상인 노인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개개인이 지역 경제 이익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을 지역공동체에 재편입시켜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지역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하는 지역복지형 모델인 거점 경로당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한다.

2) 결론 및 정책제안

- 경로당은 지역사회 노인들이 풍부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임에도 현재 고성군 경로당은 그 수에 비해 경로당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앓고 있다.

- 본 연구는 고성군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주체인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역할 미정립, 노인복지관 부재로 인한 노인복지 사각지대 발생, 경로당 규모

의 협소와 노후화, 높은 비율의 프로그램 미실시 경로당 존재한다.

둘째 경로당 이용 노인의 초고령화와 낮은 경제 및 건강상태, 인구 특성별 격차, 프로그램 단순성과 흥미 없는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인한 프로그램 불만족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크게 3가지 경로당 운영의 정책 과제 제시한다.

첫째: 경로당 운영체제의 개선을 위해 운영조직 및 인력진단을 통해 조직의 재정비를 제시한다.

둘째: 경로당 이용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선호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별 인구특성별 경로당 특성화 사업 추진 제시한다.

셋째 산재한 경로당의 효율적 전문적 운영을 위한 시설통합형 거점 경로당 시범사업 추진으로, 전통적 사랑방 기능의 경로당과 새로운 프로그램 제공의 경로당 기능 통합과 분리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고성군은 앞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적극 수용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4) 경북형 경로당 활성화 방안
- 강홍구(2000)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경로당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이홍근·이화영(2011).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 엄기욱.박인아(2005). 경로당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박정호.정은하(2005) 경로당 여가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요인
- 임춘식,김근홍,김문석.이근홍,이인수(2006) 서울시 경로당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이중섭,조경옥,송용호(2014). 전라북도 경로당 활용 노인복지전달체계 개편 필요성과 과제
- 윤준희.유동상(2015) 충남도민의 삶의 질 개선방안(충남형 경로당 활성화방안)
- 지방행정연구원(2014) 광준광역시 경로당활성화 방안(마을복지문화센터 전환을 중심으로
- 송명중,김모두,이효원(2019) 거점경로당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연구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네트워크 형성을 중심으로